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仲 維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Grace H. Chung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仲 維

仲維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현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대신 일차적으로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조손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조손가족은 199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조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었으며 조손가족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긍정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들도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환경요인(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에서 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은 총 147명이었으며 이 중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7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del 1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 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정경제수준에 대해서 빈곤하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가족빈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Model 2에서 가족관계의 질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라는 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 가정경제수준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정경제수준이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그들에게 가정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를 통해 상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교급 변수는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변수들 변수를 투입하여도 그 차이가 사라지지 않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학교급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지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조부모 사이에 높은 가족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

학 번 : 2012-24046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조손가족의 개념과 일반적 특성	6
2.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1
3.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3
1) 가족관계의 질	16
2) 교사지지	19
3) 지역사회지지	20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23
1. 연구문제	23
2. 연구모형	24
IV.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5
1) 삶의 만족도	26
2) 가족관계의 질	26
3) 교사지지	27
4) 지역사회지지	28
5) 사회인구학적 특성	29
3. 자료분석방법	30

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2
2. 변수의 일반적 특성	33
3. 변수간의 상관관계	34
4.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
VI. 결론 및 논의	39
참고문헌	43
부 록	54

표 목 차

[표 1] 조손가구의 연도별 현황	8
[표 2]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3] 가족관계의 질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 4] 교사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5] 지역사회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6]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2
[표 7] 변수의 일반적 특성	33
[표 8] 변수간의 상관관계	35
[표 9]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38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4
-------------------	----

I. 문제제기

한국 사회는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가족구조 및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이혼, 사망 및 실종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대신 일차적으로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김미혜·김혜선, 2005; 이창식·박미자, 2009). 이러한 가족이 현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손가족이다.

조손가족은 199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조사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에 따라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중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조손가족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조부모의 양육부담,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문제와 생활만족도 등을 다루고 있다(강미희, 2012; 김한호·우국희·김동진, 2012; 송유미·이선자, 2011b; 양수민·임춘식·오윤자, 2008; 이선형·이경림, 2009; 이창식·박미자·장은순, 2010).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나 우울 및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이윤화, 2010b; 이윤화·김동기, 2011; 이창식 외, 2010; 정혜원, 2013; 최혜지, 2010), 문제행동(박옥임·김진희, 2008; 이창식 외, 2009), 적응(김혜성, 2004; 송유미·이선자, 2011a; 송유미·이윤희, 2009; 이윤화, 2010a; 천미영·김희정, 2011)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

에서는 조손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국내연구들과는 반대로 해외연구들은 부정적인 문제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 최근 들어 국내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조손가족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황명진, 2011). 그러나 현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긍정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행복감 및 만족감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2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 청소년(93.3%)보다 한국 청소년(74.4%)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또한 한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물질적 행복’ 영역점수는 중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박종일·박찬웅·서효정·염유식, 2010), 물질적 행복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서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7.7%)들이 양부모가족 아동·청소년(1.7%)에 비해서 6.0%p만큼 높았

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27.6%)은 양부모가족 아동·청소년(16.2%)보다 11.4%p만큼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에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중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족요인 중에서 가족 내 부모의 역할이나 관계가 미성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채진영, 2012). 학교요인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를 느낄수록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철·최성보, 2012). 다음으로 지역사회요인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 외, 2012).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학년 및 가정경제수준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수란, 2009; 김혜원·홍미애, 2007; 손주영 외, 2006; 이현철 외, 2012; 임미향·박영신, 2006).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족요인과 관련해서 조손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부재로 인하여 조부모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원이 되며(송유미 외, 2011a),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조부모의 역할이나 관계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학교요인과 관련해서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지만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은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사지지가 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류재중 외, 2007; 최해경 외,

2007). 다음으로 지역사회요인을 살펴보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부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지역사회지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차상, 2009).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천미영 외(2011)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생활을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반면 지역사회지지를 받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을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 학년 및 가정경제수준이 중요하다. 이 밖에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조부모 동거형태와 형제자매 동거여부가 있다(이운화, 2010b; 장휘숙, 200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서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재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련하여 각 영역별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 문제행동, 적응유연성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송유미 외, 2011a; 이운화, 2010b; 이창식 외, 2009; 이창식 외, 2010).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몇몇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변수는 주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박미자·이창식, 2008; 이창식 외, 2010). 그러므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문제 해결이나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주, 2012; Huebner et al., 2004; Park, 2004).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에 관련성이 높으며(양선미·박경, 2011),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보이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박영신·김의철, 2001; 전은표·이양희, 2006; Lewinsohn, Redner & Seeley, 1991).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높다는 연구결과 또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권구영, 2012; 이윤화, 2010b; 이윤화 외, 2011; 최혜지, 2010),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문제행동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박미자 외, 2008; 이창식 외, 2010). 반면에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식 외, 2010). 따라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민·임영식, 2013; 문제우, 2012; Park,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조손가족의 개념과 일반적 특성

현재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조부모-손자녀 가족(옥경희, 2005); 조부모가족(황혜원·박현순·유옥현·김선범, 2006); 조손가구(최혜지, 2006); 조부모-손자녀 가정(서현, 2009); 조손가정(권구영, 2010; 김진숙, 2009; 천미영 외, 2011; 박경애·이무영·장기정, 2012), 조손가족(김미혜·김혜선, 2005; 박수선, 2013; 송유미 외, 2011a; 이정화·한경혜, 2008; 정혜원, 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동일한 가족유형을 연구하고 있지만 모두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학술논문이나 조손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안에서 모두 '조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조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연구자마다, 해당법률 및 실행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윤혜미·장혜진, 2012). 옥경희(2005)와 서현(2009)은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 없이 손자녀 양육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즉 부모가 부재한 경우에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형태가 조손가족인 것이다. 최혜지(2006)는 손자녀의 부모세대가 가구 내에 기능적·구조적으로 부재함으로 인해 3세대인 손자녀의 양육책임을 조부모가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가구를 조손가족이라고 정의했다. 이정화와 한경혜(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으로, 조부모가 6개월 이상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이혼, 사망 및 실종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대신 일차적으로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규정하였다(구향숙, 2013; 김미혜 외, 2005; 송유미 외, 2011a).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조손가족을 '부모의 이혼, 사망 및 실종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대신 일차적으로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유형'이라고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손가족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개정하여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의2 특례에서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2014).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가정위탁의 형식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2012)에 속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조손가족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가정으로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윤혜미·장혜진, 2012).

이러한 조손가족 관련 법률에서는 조손가족을 일반 조손가족과 위탁가족으로서의 대리양육 조손가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부모의 존재 유무로서, 전자의 조손가족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였지만 생존해 있는 반면, 대리양육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조손가족 중 소수만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뿐, 대부분의 조손가족은 서류상으로 아동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지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일

반 조손가족 역시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윤혜미 외, 2012). 그러므로 현재 조손가족 관련 법률들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과 지원정책이 마련 필요하다.

1995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유형을 조사할 때 처음으로 조손가족을 한 가지 가족유형으로 분류해서 조사했다.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95년 조사에서는 조손가족은 35,194가구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68,13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년만에 조손가족이 2배 가깝게 늘라운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의 질병, 수감, 경제적 무능, 재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발표된 통계치보다 조손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원경·전제아, 2010). 동부의 경우는 1995년에 4,366가구 있는데 2010년에는 그 수가 51,836가구로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는 읍부와 면부는 1995년 처음 조사한 11,990가구와 18,838가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1] 조손가족의 연도별 현황

(단위:가구 수)

행정구역	1995	2000	2005	2010
전국	35,194	45,225	58,101	68,135
동부	4,366	5,725	36,468	51,836
읍부	11,990	13,504	7,216	6,828
면부	18,838	25,996	14,417	9,471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는 두 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근 실시한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손자녀 연령이 10대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연령은 13.3세였다. 만 7세부터 만 12세 사이의 손자녀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손자녀가 각각 50.3%와 47.0%였다. 반대로 만 6세 이하의 유아는 2.7%에 불과하였다. 전체 조손가족 손자녀의 남아와 여아 비율은 각각 54.6%와 45.4%였다. 조손가족 손자녀들은 고등학생이 33.2%, 중학생이 32.5%였으며, 초등학생은 31.6%, 미취학 손자녀는 2.6%였다. 그리고 조손가족 한 가구당 손자녀 수는 평균 1.4명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다면 한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66.2%였고, 두명 이상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33.8%였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조사가 조부모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부모 평균 연령은 만 72.6세로 조사되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조부모 부부가 모두 동거하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17.1%였고, 조부 또는 조모가 혼자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82.9%였다. 조부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부분으로 약 82.3%이었고, 중졸(10.0%), 고졸(5.5%)과 대졸(1.3%)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손가족의 경제수준은 월 평균소득이 약 59.1만원 정도였다.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가구가 가장 많아 44.0%였고, 40만원 미만인 가구가 20.1%였으며, 80만원 이상의 소득은 전체의 17.9%로 10가구 중 2가구에 도 미치지 못 한다. 이를 통해 가정경제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넷째, 조손가족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중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은 각각 40.6%와 40.2%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은 19.2%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표1]에서 통계청을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섯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유를 살펴보면, 주된 이유로는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 해체인 경우가 53.2%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에 의해 맡겨진 경우가 14.7%, 친부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맡겨진 경우가 11.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손가족 형성이 가장 많다는 박현식(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성가족부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손자녀의 연령은 7~18세가 97.3%였으며, 한 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66.2%)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만 72.6세이었고, 최종학력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조손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주 지역은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또한 부모세대가 이혼과 재혼을 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한 부분이다(Gítmez & Morcöl, 1994).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물게 경험하는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Diener, 1994). 즉 삶의 만족도는 사람의 인지와 판단 과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선택 기준에 따른 주관적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Shin & Johnspn, 1978)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Diener, Emmons & Griffin, 1985).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 속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문재우, 2012). 따라서 삶의 만족도 측정에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성이 중요하며, 그 기준은 외부로부터 부과되지 않는다(Diener, Emmons & Griffin, 1985). 즉 삶의 만족도는 현시점에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인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삶의 만족도는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개인의 내면적 요인과 주위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현웅·곽윤정, 2011).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이기에 개개인의 발달단계나 생활영역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곽수란, 2007).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주 생활영역이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강유진, 2008; 곽수란, 2007). 이처럼 개인의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요인들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조손가족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다루어왔다(김미혜 외, 2004; 박충선, 2010; 양순미 외, 2008; 이미영, 2007). 조부모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 신체적 건강, 양육 스트레스(김미혜 외, 2004), 조손가족의 형성동기, 양육경험(박충선, 2010), 손자녀의 학교학습(이미영, 2007)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들은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조손가족에서 조부모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때부터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다. 조부모들이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경험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박현식, 2010; 김미혜 외, 2004; 이미영, 2007; 양순미 외, 2008). 조부모가 손자녀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따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조손가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주로 통제변인으로 설정되어 다른 변인의 설명력을 더 부각시켜 주는 역할로 활용되어 왔다. 박미자 외(2008)는 삶의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넣어서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창식 외(2010)의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격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춰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3.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차이가 있으며(이현웅 외, 2011), 박수란(2009) 그리고 김혜원과 홍미애(2007)의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다(임미향·박영신, 2006).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으며(박영신 외, 2001), 고등학생에 비해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가 높았다(손주영 외, 2006; 조성연·김혜원·김민, 2011). 학년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문재우, 2012), 그리고 이현철 외(2012)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적하는 종단연구에서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전체 학교급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현웅 외(2011)는 학교급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4~6학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중·고등학교 학생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전체 학교급에 따라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가정경제수준 또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현철 외, 2012; 조진만·강정한·이병규, 2012). 특히 조손가족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정경제수준이 여러 중요한 생활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혁, 2012; 류재중·조아미, 2007; 최해경 외, 2007). 따라서 가정경제수준도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 있어서 일반가족 아동·청소년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조부모 동거형태와 동거 형제자매여부들을 들 수 있다(최해경 외, 2007),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조부

모 동거형태와 동거하는 형제자매 수에 따라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며,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윤화, 2010b). 또한 형제자매관계가 좋으면 아동·청소년은 더 큰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7).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 특성들이 이들에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가정경제수준 외에도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족과 관련해서 주로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현웅 외, 2011), 부모-자녀갈등(안선정·이현철·임지영, 2013), 부모애착(유안진·이점숙·김정민, 2005), 부모감독(이주리, 2008), 부모의 관심(문제우,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조성연 외, 2011), 가족식사빈도(배희분·옥선화·양경선·Chung, 2013), 부모의 과잉적 양육(김영민 외, 2013), 부모관계(곽수란, 2009) 등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질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조손가족에게 있어 가족관계의 질은 일반가족 달리 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의미한다(송유미 외, 2011a). 따라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는 학교생활(최성보 외, 2011), 학교적응(김영민 외, 2013; 유경훈, 2013), 학업성적(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 1999; 이현웅 외, 2011), 교사애착(강유진, 2008; 조진만 외, 2012), 교사지지(민병기·박영신·김의철, 2002; 박영신 외, 1999), 교사관계(곽수란, 2009; 박영신 외, 2001; 이현철 외, 2012; 최성보 외, 2011)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요인인 지역사회의 경우 주로 사회적 지원(박영신 외, 2001; 민병기 외, 2002), 사회적 관계(신미 외, 2012), 지역 활동(김남정·임영식, 2012, 김윤나·박옥식, 2009; 박재숙, 2011), 이웃관계(신미 외, 2012), 지역 사회풍토(곽수란, 2009), 공동체 의식(김상미·남진열, 2011; 박재숙, 2011; 최형임·문영경, 2013) 등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중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가족 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 중요한 요인을 선정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족관계의 질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관계이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 인간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다(곽수란, 2007). 가족관계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현웅 외, 2011; 문제우, 2012; 배희분

외,2013; 안선정 외, 2013; 유안진 외, 2005; 이주리, 2008; 조성연 외, 2011; 조진만 외,2012). 이처럼 수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역할이 미성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부모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책임감도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성미애·장윤희, 2008; 정현숙, 2002). 그러나 조손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에 남겨지게 된다.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부모를 대체하는 조부모가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원이 되며(송유미 외, 2011a), 이때 그들이 조부모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황명진, 2011). 조부모가 부모의 빈자리를 적절히 채워줄 수 있다면 이는 부모 부재로 인하여 부족해진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자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송유미 외, 2011a; 이창식 외, 2009; 정정신·이현경·박희숙, 2006). 그래서 조손가족의 가족관계 질은 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의미한다(송유미 외, 2011a).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들이 지각하는 조부모와의 관계는 보통으로 지각하는 손자녀가 62.3%였고 친하게 지낸다고 지각한 손자녀는 32.9%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95.2%의 조손가족 손자녀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보통이상으로 지각하므로 조사한 조손가족 손자녀대상자(N=9,942)가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조손가족의 손자녀와 조부모는 일반가족의 손자녀와 조부모에 비해서 접촉하는 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상호간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이창식 외, 2009). 따라서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관계는 일반적 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보다 상호호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노년기 조부모가 사회적 역할에게 점점 상실되고 소외되는 부분을 손자녀 관계를 통해 해소하며 삶에 새로운 가치와 보상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손자녀들도 조부모가 돌봐주므로 조부모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박경애, 2007). 이처럼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조부모와의 관계는 소중한데, 비록 조손가족마다 가진 상황과 처지가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한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정정신 외, 2006). 특히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 있어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최해경 외, 2007). 즉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송유미 외, 2011a), 이 관계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잠재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황명진, 2011).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은 손자녀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최혜지, 2010)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해경 외, 2007). 즉 조손가족의 가족관계 질은 조손가족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정신 외, 2006).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가족관계 질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며, 이들이 이러한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교사지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사의 지지도 중요하다(강유진, 2008; 곽수란, 2009; 민병기 외, 2002; 박영신 외, 2001; 박영신 외, 1999; 이현철 외, 2012; 조진만 외, 2012; 최성보 외, 2011).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의미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정도에 따라 느끼는 지원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학생과 교사가 친밀할수록 발생하는 정서 지지, 생활지도, 지식전달에 있어서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지지적인 관계를 말한다(신원영·강현아, 2008). 이현철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지지적인 교사관계를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곽수란, 2009; 박영신 외, 2001; 신미 외, 2012; 최성보 외, 2011).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원만한 교사지지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 형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병기 외, 2002).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조손가족의 아동·청소년은 모두 학생이므로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래서 교사지지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손가족의 청소년에게 교사들이 무관심할수록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류재중 외, 2007). 반면에 교사와 조손가족 아동의 관계가 친밀하고 의존적 관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박희숙, 2012). 즉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교사지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이창식 외, 2010). 따라서 교사지지가

그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곽수란, 2007).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사지지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지지

지역사회자본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성인들(가족구성원이나 친구, 교사 제외)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관계를 뜻한다(신원영 외, 2008).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Barger, Donoho & Wayment, 2009). 지역사회자본 중 하나인 지역사회지지는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를 의미한다(최인재 외, 2012).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이다(이규선·황희연·홍의동·성순아, 2014; 이정규, 2009; 정순돌·성민현, 2012). 특히 지역사회지지는 아동에게 더 나은 건강관련 삶의 질(Drukker, Kaplan, Feron & Van Os, 2003)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관계를 통해서 사회자원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사회자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Barger, Donoho & Wayment, 2009).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관계의 지지를 얻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신미 외, 2012). 또한 지역사회 모든 구

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풍토가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곽수란, 2009).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지지는 그들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화·최해경, 2012; 천미영 외, 2011). 특히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부재로 인하여 일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가족 내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지지가 이들에게 외부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박차상, 2009). 즉 조부모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지지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천미영 외, 2011). 조손가족에서 조부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다수였고 가정경제수준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조부모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을 학습지도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공부나 예체능과 관련하여 개인학원이나 과외교습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학습지도와 문화경험의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윤혜미 외, 2012; 천미영 외, 2011). 이러한 지역사회 지지를 받았다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은 단조로운 생활에 흥미를 느꼈다는 질적 연구결과가 있었다(천미영 외, 2011). 이와 더불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클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류재중 외, 2007). 조손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할 때 현재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지지가 조손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경석, 2010). 앞서 살펴본 바처럼 지역사회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자원이며, 이들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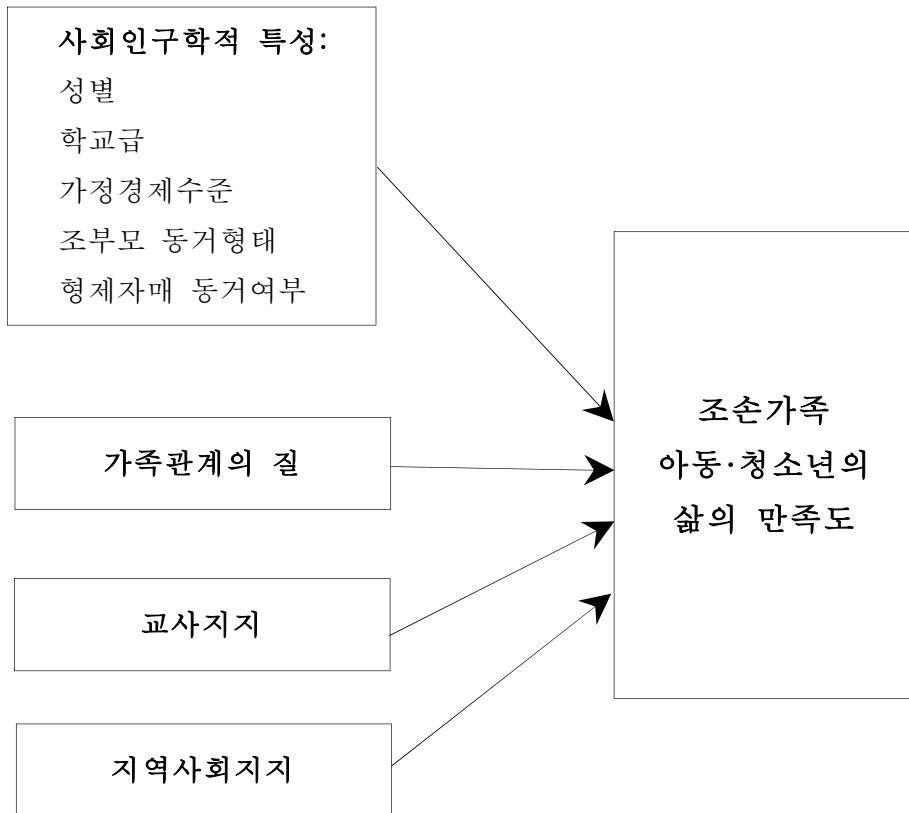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형제자매 동거여부)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연구를 위해 설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과제 중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서 조사한 지역 및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으로 총 8,745명의 아동·청소년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중에서 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총 147명 중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한 최종 77명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의 동거유형, 형제여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변수이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아동·청소년들의 만족도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척도에 포함되어있는 교사관계와 학교생활을 제외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부모와의 관계 문항은 조손가족의 결측값으로 처리되어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 사용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한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불만족(1점), 약간 불만족(2점), 약간 만족(3점), 매우 만족(4점)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신뢰도
삶의 만족도	1) 경제적인 생활수준	.868
	2) 친구와의 관계	
	3) 여가 생활	
	4) 학업성적	
	5) 건강	

2) 가족관계의 질

가족관계의 질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3 문항, 친밀감 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는 최인지 외 (2010)가 2010년 한국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에서 개발한 가족

관계의 질 척도이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다음 [표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가족관계의 질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신뢰도
유대감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925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친밀감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최인재 외(2010)가 2010년 한국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에서 개발한 교사관계 척도였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지지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다음 [표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교사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신뢰도
교사지지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878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4) 지역사회지지

지역사회지지는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를 측정했다. 이 척도에서는 최인지 외(2010) 2010년 한국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에 개발한 지역사회지원 척도였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한 지역사회지지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다음 [표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5] 지역사회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신뢰도
지역사회지지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885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5)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 무엇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형제자매 동거여부 변수를 투입했다. 이 변수들은 대부분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0'으로, 여자를 '1'로 부호화하였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측정되었으며, 매우 못 산다(1점), 못 산다(2점), 약간 못 산다(3점), 보통 수준(4점), 약간 잘 산다(5점), 잘 산다(6점), 매우 잘 산다(7점)로 구성되어 있다.

조부모 동거형태는 '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할머니/외할머니' 등 현재 동거하는 조부모를 모두 체크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할머니/외할머니'와 모두 함께 체크하는 조부모 동거집단과, '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할머니/외할머니' 중에 한 명만 동거하는 조부 또는 조모 동거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형제자매 동거여부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SNU IRB No. E1404/002-012)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동거형태, 형제자매 동거여부 등의 빈도와 배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삶의 만족도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를 살펴본 모형에 대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응답한 대상자는 총 77명이며, 모두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다. 남자는 43명, 여자는 34명이었다. 응답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36.4%, 36.4%, 27.3%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각하는 비중이 35.1%이었으며, 전체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중간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29.9%였다. 그 다음에 잘하는 수준이 15.6%와 매우 못하는 수준이 14.3%로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매우 잘하는 수준이 4%로 제일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부모와 동거형태의 경우, 조부모 모두 동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53.2%). 할머니나 외할머니와 동거하는 아동·청소년은 37.7%를 차지하였으며,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와 동거하는 아동·청소년은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9%).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아동·청소년은 71.4%였으며,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28.6%였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보통수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26.0%). 이어서 약간 잘 산다는 응답이 23.4%, 약간 못 산다는 응답이 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못 산다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44.2%). 읍면 지역은 29.9%였고 대도시는 26.0%였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43	(55.8)	-
	여학생	34	(44.2)	
	합계	77	(100.0)	
학교 급	초등학교	28	(36.35)	-
	고학년	28	(36.35)	
	중학교	21	(27.3)	
	고등학교	21	(27.3)	
학업성적	합계	77	(100.0)	2.62 (1.077)
	매우 못하는 수준	11	(14.3)	
	못하는 수준	27	(35.1)	
	중간	23	(29.8)	
	잘하는 수준	12	(15.6)	
	매우 잘하는 수준	4	(5.2)	
조부모 동거형태	합계	77	(100.0)	-
	할아버지/외할아버지	7	(9.1)	
	할머니/외할머니	29	(37.7)	
	조부모 모두	41	(53.2)	
형제자매 동거여부	합계	77	(100.0)	-
	없다	55	(71.4)	
	있다	22	(28.6)	
가정경제 수준	합계	77	(100.0)	4.11 (1.439)
	매우 못 산다	2	(2.6)	
	못산다.	9	(11.7)	
	약간 못 산다.	14	(18.2)	
	보통 수준.	20	(26.0)	
	약간 잘산다.	18	(23.3)	
	잘 산다.	8	(10.4)	
	매우 잘산다.	4	(5.2)	
지역규모	무응답	2	(2.6)	-
	합계	77	(100.0)	
	대도시	20	(26.0)	
	중소도시	34	(44.1)	
지역규모	합계	77	(100.0)	-
	읍면지역	23	(29.9)	
	읍면지역	23	(29.9)	

2. 변수의 일반적 특성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및 지역사회 지지의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이 4이다.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우성 가족관계의 질의 평균값은 3.04이고 표준편차가 .80이었다. 다음은 교사지지의 평균값은 2.68이고 표준편차가 .82이었다. 마지막 지역사회지지의 평균값은 2.68이고 표준편차가 .82이었다. 본 연구의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및 지역사회지지가 중간 이상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질은 교사지지와 지역사회지지에 비해서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7] 변수의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족관계의 질 (N=76)	3.04 (.80)	1	4
교사지지 (N=76)	2.68 (.82)	1	4
지역사회지지 (N=77)	2.78 (.93)	1	4

3. 변수간의 상관관계

앞서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을 논의할 때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형제자매 동거여부이고, 가족·학교·지역사회 변수는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로 측정하였다.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하려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가족관계 질(.657, $p < .01$)과 지역사회 지지(.543, $p < .01$)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표 8]. 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종모형에 대해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VIF < 10$). 검증한 결과는 변수간 VIF 계수는 1.15~1.914사이로 10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부모 동거형태의 변수는 조부모 모두 동거하는 집단과 한조부모(조부 또는 조모 동거)를 나눠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고, 형제자매 동거여부 변수는 동거 형제자매 있는 집단과 동거 형제자매 없는 집단을 나눠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8] 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성별	1										
2.초등학교	-.183	1									
3.중학교	.252*	-.571**	1								
4.고등학교	-.075	-.463**	-.463**	1							
5.가정경제 수준	-.124	.397**	-.115	-.296**	1						
6.조부모 모두 동거 ¹⁾	-.005	.330**	-.049	-.303**	.163	1					
7.동거 형제 자매 있음 ²⁾	.132	-.179	.060	.129	-.151	-.272*	1				
8.가족관계 의 질	-.073	.365**	-.355**	-.015	.224	.307**	-.242*	1			
9.교사 지지	-.052	.251*	-.083	-.181	.082	.225	-.227*	.499**	1		
10.지역사 회지지	-.117	.300**	-.060	-.259*	.264*	.038	.021	.365**	.414**	1	
11.삶의 만족도	-.095	.570**	-.308**	-.283*	.444**	.182	-.146	.657**	.322**	.543**	1

*p<0.05 **p<0.01 ***p<0.001

준거집단: 1)한조부모(조부 또는 조모 동거) 2)동거 형제자매 없음

3.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학교·지역사회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Model 1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았다. Model 1의 유의 확률은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382$). Model 1에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동거형제자매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일 경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반면, 성별, 조부모 동거형태, 동거형제자매 유무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 수정된 R^2 는 .307이므로 회귀직선이 전체의 산포 중 약 30.7%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Model 2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동거형제자매 유무) 및 가족·학교·지역사회 변수(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를 투입하여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았다. Model 2의 유의 확률은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387$). F값 변화량($\Delta df=3$)이 8.005이며,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Model 2가 Model 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가족·학교·지역사회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해서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의 질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b=.532$). Model 2에서 가족관계의 질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beta=.538$). 즉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질을 좋게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지지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지역사회 지지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245$). 즉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Model 2에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특성인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동거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일 경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라는 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 가정경제수준의 효과가 사라졌다. 셋째, 성별, 가정경제수준, 조부모 동거형태, 동거형제자매 유무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2의 수정된 R^2 는 .623이므로 회귀직선이 전체의 산포 중 약 62.3%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R^2 변화량은 Model 1에 비해서 .316가 증가하여서 31.6%p 만큼 설명력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구분	(N=77)					
	Model 1 (N=77)			Model 2 (N=76)		
	b(S.E)		β	b(S.E)		β
상수	2.761	(.359)***		1.040	(.377)**	
<i>사회인구학적 변수</i>						
성별 ¹⁾	.072	(.161)	.046	.063	(.120)	.039
중학교 ²⁾	-.756	(.200)***	-.461	-.415	(.155)*	-.253
고등학교 ³⁾	-.712	(.227)**	-.406	-.572	(.174)**	-.327
가정경제수준	.150	(.060)*	.272	.086	(.045)	.156
조부모 모두 동거 ⁴⁾	-.013	(.173)	-.008	-.171	(.133)	-.108
동거 형제자매 있음 ⁵⁾	-.038	(.178)	-.022	-.008	(.136)	-.005
<i>가족·학교·지역사회 변수</i>						
가족관계의 질				.532	(.095)***	.538
교사지지				-.147	(.087)	-.151
지역사회지지				.245	(.075)**	.288
F	6.382***			14.387***		
Adj. R-square	.307			.623		
△Adj. R-square				.316		

*p<0.05 **p<0.01 ***p<0.001

준거집단: 1)여학생 2), 3)초등학교 4)한조부모(조부 또는 조모 동거) 5)동거 형제자매 없음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 학교지지, 지역사회지지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에 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문재우, 2012; 박영신 외, 200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이현철 외, 201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경제수준에 대해서 빈곤하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가족빈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광혁, 2012).

Model 2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관계의 질, 학교지지, 지역사회지지를 포함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odel 2에서 가족관계의 질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의 질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조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는 지점이다(송유미 외, 2011).

둘째,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었다고 지각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신미 외, 2012). 셋째, 사회인구학 특성변수 중에 가정경제수준은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라는 변수들을 투입한 후에 그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정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에게 가정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를 통해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학교급 변수는 가족관계의 질,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변수들 변수를 투입하여도 그 차이가 사라지지 않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학교급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각 학교급별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의미에 있어서 개인 삶의 전체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높은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잘 이겨낸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혜주, 2012; Huebner et al., 2004; Park, 2004).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가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지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조부모 사이에 높은 가족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에 들어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학습지원과 돌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손자녀 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 휴먼네트워크에서는 조손가족 등 취약한 가족을 사회적 관심계층(멘티)과 사회지도층, 전문가(멘토)와 연계함으로써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인적 역량개발 및 비전 형성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각 학교급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손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집된 8,745명 아동·청소년의 자료에서 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총 147명 중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77명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전체 조손가족을 대표하고 일반화하는 데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데이터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얻은 것인데,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질과 같은 문항을 응답할 때 가족 바운더리 속에 아동·청소년이 같이 동거하는 조부모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더라도 우리 가족 범주에는 이혼한 부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리고 조손가족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부모의 인구학 특성이 많이 없는 것이 좀 아쉽고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2012). 빈곤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20(2), 69-77.
-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1), 1-21.
- 곽수란. (2009). 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패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9(4), 1-20.
- 구향숙. (2013). 조손가족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5(3), 271-294.
- 권구영. (2010).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감과 학교적응유연성간 관계 :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1), 205-230.
- 김광혁. (2012). 조손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빈곤의 시간과 다양한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叢**, 27(2), 41-55.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韓國老年學**, 24(3), 153-170.
- 김미혜, 김혜선. (2005).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관련 요인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1), 138-166.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원경, 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 (1), 79-99.
- 김진숙. (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1-25.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혜원, 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류재중, 조아미. (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 문재우(2012), 청소년의 비만, 우울, 자아존중감 및 신체 이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3(2),

119-146.

- 민병기, 박영신, 김의철. (2002). 靑少年의 生活滿足度 形成에 관한 研究: 社會的 支援과 自己效能感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8, 161-202.
- 박경애(2007).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보상감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애, 이무영, 장기정. (2012).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59-75.
- 박미자·이창식(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0(1), 93-114.
- 박수선. (2013). 조손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과정 기초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41-57.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2001). IMF 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박옥임, 김진희. (2008).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 3세대 가족과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Vol.13 No.3, 73-88.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차상. (2009). 사회자본관점에서 본 조손가정 (祖孫家庭)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論文集-논문집편집위원회**, 32, 213-230.
- 박충선. (2010).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105-125.
- 박현식. (2010). 조손가족의 특징과 손자녀 양육지속의사에 관한 질적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30(3), 779-791.
-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 박희숙. (2012). 조손가정 유아의 학습준비도 관련 변인 탐색. **幼兒教育研究**, 32(2), 333-351.
-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Grace H Chung. (2013).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0(4), 125-149.
- 서현. (2009).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생활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6, 1-30.
- 성미애, 장윤희. (2008).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쟁점 고찰 -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쟁점 고찰. **가족과 문화**, 20(2), 161-195.
- 손주영, 이연숙, 이윤정, 정선희, 전진유, 김윤선, 김하늬. (2006). 중학생과 학부모의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에 관한 요구도와 생활 만족도.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8(1), 95-111.
- 송유미, 이선자. (2011a).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

- 복지연구, 42(3), 329-353.
- 송유미, 이선자. (2011b).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韓國老年學**, 31(3), 795-811.
- 송유미, 이운형. (2009).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한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41-68.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兒童學會誌**, 33(1), 81-92.
-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 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순미, 임춘식, 오윤자. (2008). 농촌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 보상적 가치관이 손자녀 양육 이후의 생활만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 **農村社會**, 18(2), 145-178.
- 양선미, 박경. (2011).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79-100.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
- 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 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65-84.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55-65.
- 유경훈. (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

- 도의 구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8). 가족관계학. 출판사: **교문사**.
- 유현영. (2003). 중학생의 완벽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3), 313-330.
- 윤명숙, 이재경. (2014). 비행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음주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155-180.
- 윤혜미, 장혜진. (2012). 조손가족의 삶 : 쟁점과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16(2), 259-288.
- 이규선, 황희연, 홍의동, 성순아. (2014). 동네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주시 산남두꺼비생태마을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17-29.
- 이미영. (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福祉行政論叢**, 17(1), 203-230.
- 이선형, 이경림. (2009). 임춘희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선화, 최해경. (2012). 조손가족 청소년의 성인역할 부담 정도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23(3), 81-103.
- 이윤화, 김동기.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조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2.
- 이윤화. (2010)a.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 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37-158.
- 이윤화. (2010)b.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 생활적응 영향 요인. **人文社會科學研究**, 29, 128-168.
- 이정규. (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人文社會科學研究**, 22, 5-40.
- 이정화, 한경혜. (2008). 농촌 조손가족의 세대관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 **韓國老年學**, 28(1), 177-196.
- 이주리. (2008). Data Mining을 이용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人間發達研究**, 15(4), 51-65.
-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20.
- 이창식, 박미자. (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3세대가족 청소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51-172.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이현철, 최성보.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종단 분석, **社會科學研究**, 51(2), 159-187.
- 임미향·박영신. (2006).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2, 159-179.
- 장혜주. (2012).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1), 75-93.
- 장휘숙. (2007). 형제자매의 구성과 친구관계, 애착 및 생활만족의 관계.

- 人間發達研究, 14(2), 53-70.
- 전은표, 이양희. (2006).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아동의 우울, 자아개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生活科學*, 9, 185-203.
- 정순돌, 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保健社會研究*, 32(4), 249-272.
- 정정신, 이현경, 박희숙. (2006). 전라남도 조손가정 실태 및 손자녀-조부모 관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71-83.
- 정현숙.(2002).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아동과 권리*, 6(2), 311-340.
- 정혜원. (2013). 조손가족 손자녀 성별차이에 따른 생활실태 비교. *법정리뷰*, 30(2), 61-81.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社會科學論集*, 43(1), 47-71.
- 채진영. (201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6, 317-325.
- 천미영, 김희정. (2011).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9(3), 159-182.
-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1, 1-19.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김혜인, 이재연.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2, 1-293.

- 최해경·김혜미. (2007).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 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18(3), 161-181.
-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최혜지. (2006). 조손가구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55-67.
- 최혜지. (2010). 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관한 연구: 아동의 성별, 차이를 만드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135-163.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황명진.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조손의 환경적응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5, 7-36.
- 황혜원, 박현순, 유옥현, 김선범.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 임파워먼트 접근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1), 225-243.
- Arthaud-day M. L., Rode, J C., Mooney, Christine H., Near, P.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45-476.
- Barger, S. D., Donoho, C. J., & Wayment H. A. (2009).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race/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to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 States. *Quality of Life Research*. 18(2), 179-189.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 - 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rukker M1, Kaplan C, Feron F, van Os J. (2003).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eighbou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capital. A contextu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57(5), 825-841.
- Gltmez, A. S., Morcöl, G.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77-98.
- Huebner, E. S., Suldo, S. M., Smith, L. C. & McKnight, C. G. (2004).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and Youth: Empirical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 81 - 93.
- Lewinsohn, P., Redner, J., & Seeley, J.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variables: New perspectives.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141-169). NY: Pergamon Press.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223.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부 록: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에게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인재 박사

(02)2188-887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매우 자주 했기 때문에 ‘④’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 나는 슬프지 않다 ㉡ 나는 슬프다 ㉢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 나는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어쩌면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 나는 별을 받을 것 같다 ㉣ 나는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 나는 평소 우는 것 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 나는 요즘 항상 운다 ㉣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번호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 짜증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정신건강-2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느끼 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 히 느낌	심하 게 느낌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⓪	①	②	③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⓪	①	②	③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⓪	①	②	③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⓪	①	②	③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다	⓪	①	②	③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⓪	①	②	③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⓪	①	②	③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⓪	①	②	③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⓪	①	②	③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⓪	①	②	③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⓪	①	②	③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⓪	①	②	③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⓪	①	②	③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⓪	①	②	③

정신건강-3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 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 지 않다	때 때 로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①	②	③	④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6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①	②	③	④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7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경제적인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7) 학업성적	①	②	③	④
8) 건강	①	②	③	④

정신건강-8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9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1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2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3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배경질문

배문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특)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특)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배문 8. 전반적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한 편이다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Zhong We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the number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 families with grandparents instead of parents in charge of children, has been increasing. In 1995 the number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was first counted by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s a particular family type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ing sinc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grandparent-headed families have focused on the negative factors and studies that looked at the positive factors have been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positive aspects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o reveal the factors that provide positive impacts.

In general, previous studies on children and youths' life satisfaction index have found that their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Moreove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also been identified as major factors affecting children and youths' life satisfaction index.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ree environmental factors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eacher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that surrou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of children and youth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will be discuss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life satisfaction and promoting their pos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on Support Strategies for Enhancing Children and Youths' Mental Health"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in 2012. The study included children and youths in 16 cities across the country, from four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seniors. In this data, the number of children and youths belonging to grandparent-headed families was 147. However, this number included those living with relatives, and this study sought to exclude them to make sure that the grandparents were the ones in charge of raising children and youths. As a result, the final selection of 77 was analyzed.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general trend of data. Then,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model 1 wh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was examine, the life satisfaction index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lower

than tha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lso, when they perceived their family economic status as poor, their life satisfaction tende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is result shows how family's poverty could negatively influence the children and youth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Second, in model 2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the largest influencing factor. As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positively perceived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they tended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dex. Also, with more support from the community, their life satisfaction index tended to be higher. Lastly, when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eacher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factors were included in the equation, the effect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disappeared. This shows how the household economic status influences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youth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yet, the influence can be overcome by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teacher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school level variable did not disappear and remained significant even with the inclusion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teacher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variables. This shows how important the influence of school level i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youth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should be high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youth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se variables are expected to act as protective factors of their life satisfaction. Especially, among the variables examined in this study, the family relationship qual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re should be more support that aids the enhancement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the grandparents and the children and youths on top of community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their life satisfaction.

Recently, programs for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tested at some centers. However, these programs are being implemented and tested only in a few pla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budget should be assigned for programs like these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Key words : grandparent-headed family, children and youths' life satisfaction index,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eacher support, community support

Student Number : 2012-24046